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기독교인의 나라사랑 성경: 갈라디아서 5장13-18절

Tag: 나라,자유,자유민주,한국,건국,신약성경,갈라디아서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5:13-18)

우리 민족은 나라 사랑이 각별한 민족이다. 모든 국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영성을 주신 것이 틀림없다. 우리 민족은 인정이 많아서 대단히 정서적이며,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민족이다. 또 성격은 매우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개성과 건장한 자존감이 있고 매우 명석하기 때문이지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라면 그 어느 민족보다 강력하게 뭉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항상 신문의 사회면을 이런 사람들의 만행으로 장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선량한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악한 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마치 큰 무리인양 자신들의 주장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량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척을 한단데 있다. 착하지 않은 척, 나쁜 사람인척 하고 강한척을 한다.(요즘 계콘에서 나쁜 남자인척 하는 게그가 등장했다. 개그맨들이 서로 자기가 더 악랄한 짓을 했다고 자랑한다. 물건을 훔쳤다, 미술관에 들어가서 미술품을 훔쳤다고 자랑한다. / 그러자 송영길 이 그게 뭐야, 나는 훨씬 더 비열하고 악랄한 짓을 했지. 지나가는 할아버지 지팡이를 빼앗아서 뽀! 이히히히~ / 어~ 어떻게 그런짓을... 할아버지 지팡이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 / 당황한 송영길, 내가 부러뜨렸다고는 았했는데? 약간 흰정도? 지팡이가 합금으로된 지팡이였어, 뽀 소리 난 것은 내 다리에서 난 소리야. 그 할아버지는 지팡이가 없어도 걷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셨어 / 지팡이는 약간 거들 뿐 / 그래서 내가 빨간 스포츠카 사 드렸어 / 스포츠카 뚜껑 열리고 내 통장 본 마누라도 뚜껑 열리고) 여성들도 은근히 강하고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 왜냐면 웬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방어적 본능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하면서도 강한 사람이다. 강하면서도 친절할 사람이다.(다시 말하면 친절할 이유가 강하기 때문인 사람) 친절하면서도 내것을 빼앗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만큼, 이타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기적인 이유는 이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

서는 한없이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특별한 자유를 허락하셨다. 북한에게는 특별한 고난을 주셨고, 남한에게는 특별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현재 우리 민족의 딜렘마다. 딱 한가지 유익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특별한 자유와 특별한 고난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데체 이 자유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 길이 없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숙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독특성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자유로운 삶과 종노릇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종노릇을 할 수가 없고, 종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운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없지만 종노릇을 할 수는 있다. 그가 그렇게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북한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도 너무도 많다. 이 땅에는 여전히 중북세력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불려나가고 있다. 마치 암세포처럼.

북한식 민주주의나,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으나 오히려 목소리는 더 크다. 이들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대우조선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식 부패를 연상하는 것은 오직 나쁜은 아닐 것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진자의 갑질은 남아있고, 부패지수 또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비판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정부때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많이 도와 주었는데, 북한은 그것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탈북민을 도왔지만, 정작 정착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면 북한식 경제구조에서 자유시장의 경쟁구조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는 아니된다. 사랑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면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의 사랑은 처절한 희생의 결과로 인한 힘겨운 행복이다. 마치 출산의 고통 속에서 얻은 자녀와 같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게 될 것을 상상하지만, 그것은 사실 나는 당신에게 코가 끼었다는 표식이다.

현 정부는 더 합리적으로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또한 성전건축의 환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연구해야 한다.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4절은 이웃 사랑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15절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꼭 오늘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이다.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
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
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
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오직 기독교인들이 가능하다. 진리의 성령
께서 한국교회를 감동하실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한국교회는 위기
감을 맛보았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
다. 이제 더 이상 서로 다투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나라이 소망은 성령운동에 있다. 우
리는 진정한 성령운동을 소망하자. 성령충만이 해답이 된다. 오직 성
령운동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 도덕적으로 재무장 하는 일, 더
욱 열심히 사랑의 희생을 감당해 내는 일이다. 이것이 곧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요, 이것이 곧 성령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누구든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제자를 삼으라 성경: 마태복음 28장

Tag:제자훈련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8-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뿐만 아니라 이땅의 권세도 예수님의 것이다.

교회는 이 권세를 교회가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였다. 그렇지 않다. 교회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사랑하는 권세다. 섬기는 권세고, 희생하는 권세이며, 선을 행하는 권세다. 누가 이 권세를 막을 것인가?

예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다분히 문화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예술적이며, 교육적이며, 종교적이며, 정치적이다.

방법은 제자화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그 범위는 모든 민족이다.

제자삼음의 의미

1. 가르침과 배움이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측면이다.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다. 오직 진리를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다.

2.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형성이다. 에듀케이션이다. 양육이며 길러내는 것이고, 서로 친밀해지는 것이다.

3. 모범과 실제적인 유익이다.

-진짜라면 반드시 효과는 있다.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곧 나타나며 그 누적효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난다.

4. 훈련과 코칭이다.

-제자화는 적어도 6개월 늦어도 12개월의 시간동안 체질을 개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다.

5. 제자화는 스스로가 제자를 삼으면서 비로소 완성된다.